

「대전의료원」 설립 촉구안

의안 번호	31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8년 2월 21일

발 의 자 : 양승근의원 외 5인

1. 주 문

150만 대전시민에게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병원인 「대전의료원」 설립을 촉구함.

2. 제안이유

- 가. 공공병원은 본인 부담비용을 낮춘 표준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의료복지정책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임.
- 나.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을 통해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 시설 신축 및 증·개축, 장비 현대화 등의 의료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.
- 다.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는 공공병원이 없어 보건복지부의 각종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정책(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)에서 배제되어 적절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라.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150만 대전시민에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타 지역 주민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인 「대전의료원」 설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,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중앙의 지원을 받는 등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함.

「대전의료원」 설립 촉구안

공공병원은 본인 부담비용을 낮춘 표준적인 의료서비스와 저소득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, 의료복지정책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.

이에 보건복지부도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과거 낙후된 이미지의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가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을 수립하고,

2007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을 통해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 시설 신축 및 증·개축, 장비 현대화 등의 의료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타 지역의 공공병원은 과거와 달리 현대화된 시설, 첨단 장비, 친절함을 갖춘 새로운 공공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으며, 지역사회 주민에게는 ▲낮은 본인 부담비용 ▲믿을 수 있는 진료 ▲치료만이 아닌 각종 예방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반하여,

우리시는 공공병원 하나 없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어, 시민들에게 공공보건 의료혜택을 지원할 수 없어 심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

아울러 우리시는 현재 일반병원은 많지만 선택진료비 등 높은 본인 부담비용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이며, 심야응급 외래진료 이용 불편, 전염병 격리 병동 부족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적 병원 기능을 수행할 시 차원의 정책적 수단 또한 부재한 실정입니다.

최근 언론보도(2007년 11월 3일, 2008년 1월 10일자 대전일보 기사)에 따르면, 결핵은 법정 3군 전염병으로써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

결핵환자가 2개월 여간 찹질방 등 다중시설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국립마산 결핵병원으로 보내진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.

또한 대전지역 종합병원들이 '수익성이 없다'는 이유로 희귀 난치성 질환인 혈우병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어 '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'고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에서는 낙후지역인 동구 가오지구에 시립 병원 설립부지를 선정하였으나,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방치되다가 2007년 12월 28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동구청이 청사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동구 가오지구 의료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공공병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습니다.

그러나 우리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요 배후도시로서 향후 인구 유입 증가 등 모든 면에서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, 복지가 튼튼한 웰빙 도시가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대전광역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동구 지역에 병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보건의료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공공 병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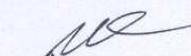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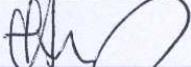
따라서 대전광역시는 150만 대전시민에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타지역 주민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인 「대전의료원」 설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.

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원은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대전광역시에 공공병원인 「대전의료원」 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

2008. 2.

대전광역시의회의 의원 일동

「대전의료원」 설립 촉구안 찬 성 의 원 서 명

의 원 명	서 명	비 고
양 승 근		
권 형 례		
이 성 훈)		
김 현 숙		
전 병 배	2000년	
김 차 훈		

수 신 처

대전광역시